

## 2. 투자 정보 및 IR 자료(하이카컴퍼니)

하이카컴퍼니는 비교적 신생 스타트업으로, 아직 본격적인 외부 투자 유치 라운드를 진행한 이력이 많지 않습니다. 창업 후 3년 동안은 주로 창업자와 초기 주주들의 **자본금 투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왔습니다. 이재범 대표는 인터뷰에서 "초기 3년간은 주주 출자를 통한 증자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했다"고 밝혀, 외부 벤처캐피털 투자 없이 자체 자본으로 핵심 기술 개발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하고 기업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린 후, 필요한 시점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유치 상황:** 2025년 들어 하이카컴퍼니는 비로소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3분기부터 IR을 준비하며, 데모데이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서울핀테크랩 Fin-Connect 데모데이에 참가해 서비스를 피칭했고,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라운드 성사 소식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5년 말~2026년 초 시드/프리시리즈 A 투자를 목표로 다수의 VC와 협의 중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0억~20억 원 규모의 시드**를 유치하여 해외 지사 설립 등 본격 확장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 및 관심사:** 하이카컴퍼니의 사업 모델은 **블록체인(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융합**이므로, 관련 분야 전문 VC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해시드(Hashed)나 해시드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금융 지주계 VC), 신한캐피탈(신한퓨처스랩) 등 블록체인·핀테크 투자를 활발히 하는 투자사들이 후보군입니다. 또한 이미 협업 중인 KB금융 측에서 전략적 투자(SI)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R에서 하이카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STO 사례** 준비 중 (공기업과 협업). -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승인** 완료로 제도권 진입. - **차별화된 자체 블록체인 기술** (자체 메인넷 or 합의 알고리즘 등) 보유. - **AI RegTech 솔루션**으로 증권신고서 시장 공략 (한국뿐 아니라 해외 공시시장 진출 가능). - **경험 풍부한 팀:** 대표의 해외 네트워크, 핵심 멤버들의 금융 IT 경력 등. - **구체적 글로벌 확장 로드맵:** 싱가포르, 두바이 지사 설립 계획 등으로 해외 진출 의지.

이런 강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한국발 글로벌 STO 플랫폼 선두주자”**라는 성장 스토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특히 ESG 투자, 디지털자산 인프라라는 메가트렌드에 올라타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이 우려할 부분은 **아직 매출이 미미하고 적자 상태**라는 점, 그리고 **국내 STO 제도가 이제 시작 단계로 시장 형성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카컴퍼니는 **이미 확보한 파트너십(동서발전, KB)과 샌드박스→정식인가 성과를 근거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추가 수익원(예: 스마트 에디터 솔루션의 라이선스 판매)**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IR 활동 및 자료:** 하이카컴퍼니는 공식 IR 브로셔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리브랜딩 소식과 함께 **“향후 10년 글로벌 확장”** 계획을 전하며, 업계의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환경잡앤조이 스타트업 CEO 연재에 소개되어 회사 개요와 비전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노출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간접 IR** 효과를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투자 라운드가 열리면, 하이카컴퍼니는 투자유치 성공 소식을 대외에 적극 알리며 신뢰도를 더 높일 것입니다. 또한 IR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있는데, 금융권 파트너사(KB 금융 등)나 대기업 계열 투자기관(예: 한화, 미래에셋 등 블록체인 관심 기업)이 투자자로 들어올 경우, 사업 제휴 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그룹은 태양광 사업이 커 STO에 관심 있을 수 있고, 미래에셋은 디지털 증권거래소 추진 경험이 있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SI를 유치하면 단순 재무 투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하이카컴퍼니는 전략투자 유치에도 열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구조:** 현재는 창업자 이재범 대표와 몇몇 공동창업자/엔젤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벤처캐피털 투자가 없기에, 지분 희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시드/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 일부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겠지만, 기술기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높게 책정되어 (프리머니 밸류 수백억 원 정도 목표?) 대표이사의 지배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재범 대표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분 희석을 감수하겠지만, 핵심 비전과 방향성은 창업팀이 주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 및 공모 과제:** 투자 외에도 하이카컴퍼니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자금과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1억 원가량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했고, 2023년에도 혁신기술 분야 지원사업에 응모해 R&D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비 Dilutive(지분 희석 없는)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IR 시에도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하이카컴퍼니는 **현재까지는 주로 내부 자본과 정부지원으로 운영**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유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곧 진행될 시드/시리즈 A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자금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 실행(원렛 플랫폼 상용화, STO 발행 개시 등)에 속도가 붙고, 2~3년 내 추가 라운드(B 라운드 이상) 또는 **글로벌 VC 투자 유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자유치 전략에 있어서는, **국내 규제 클리어 +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매력 포인트를 잘 부각하여 적절한 투자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